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9.13~2017.9.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원로 스님 구술사에 담긴 '불교 現代史'

나의 발심수행장 上 · 下

인환 지음 | 한상길 · 김호귀 편찬 | 문현 펴냄

증도가

영가 현각 지음 | 인환 해설 | 문현 펴냄

선리참구

인환 지음 | 문현 펴냄



2011년 불교학술원장 재직 시
최동순 교수 제안해 1년간 구술

원산 피난부터 행자 · 유학 시절 등
스님의 솔직한 일생 일화들 담겨
정화 · 포교 등 현대사 현장 확인돼
발간한 회고록 · 저서 법보시 계획

1951년 1.4후퇴가 한창인 원산항. 허리가 묻힐 만큼 많은 눈이 내렸다. 19세 청년의 가족도 원산항에서 군함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배는 없고 사람은 많은 상황. 어머니의 요구로 먼저 배에 오른 형을 따라 군함에 겨우 올랐다. 이후 강원도 묵호를 거쳐 형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부산서 피난생활을 하게 된다.

청년에게 피난처 부산은 마치 아수라 세계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던 중 만난 노보살에게 지금껏 봐왔던 피난생활의 참상을 이야기했다. 경청하던 노보살의 말은 이랬다. "지금 심경이 그렇거든 어떠나? 불도를 닦아볼 생각 없느냐?"

그러고는 10일 말미를 주었다. 청년은 고민했다. 한 번도 고민했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0일 뒤 보살이 전화로 다시 물었다. "그래, 학생 결심이 섰나?"

청년은 주저할 것이 없었다. "예, 할머니따라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그 길로 출가 사문의 길을 흐트러짐없이 걸었다. 바로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동국대 명예교수, 경국사 한주인 호함 인환 스님의 출가전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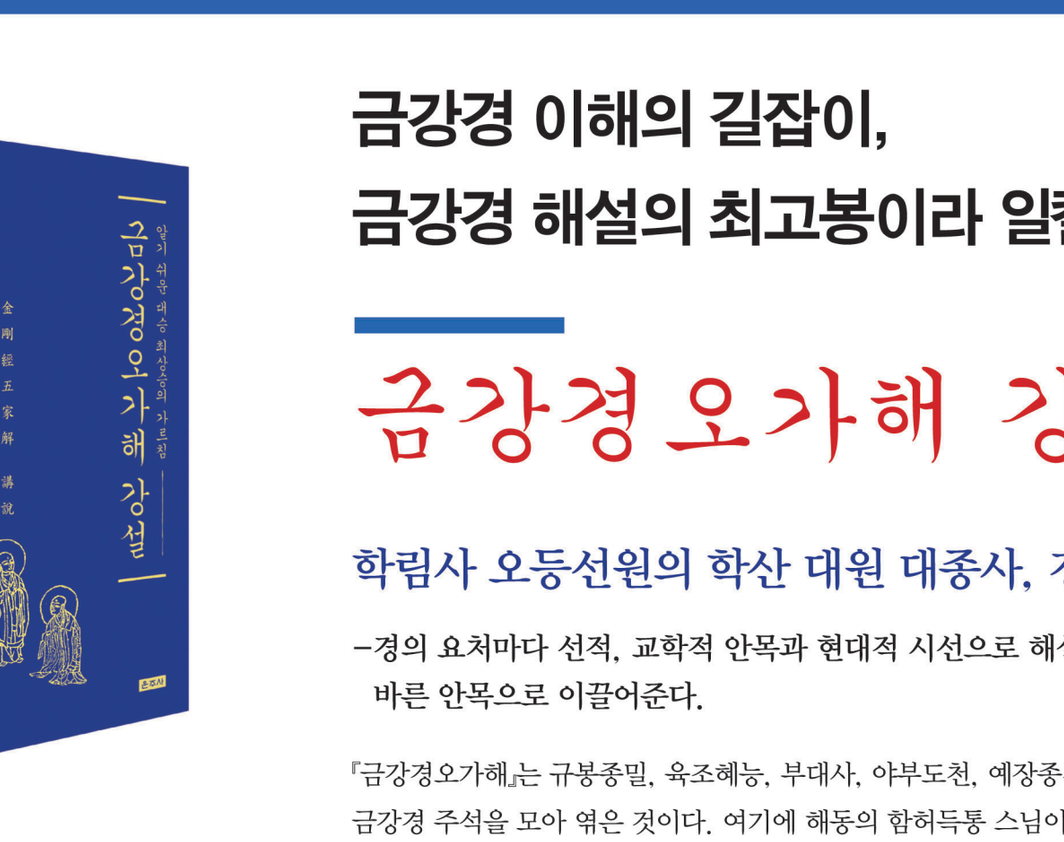
노보살의 인연으로 당도한 부산 선암사에서 불연을 맺은 스님은 어느덧 법납 67년, 세납 87년의 종단 원로가 됐다. 이같은 스님의 이야기는 최근 제자들의 도움으로 발간한 구술 회고록 〈나의 발심수행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환 스님의 구술 회고록 〈나의 발심수행장〉은 2011년 불교학술원장으로 재직 시 제자 최동순 연구원의 제안으로 구술한 생애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최 연구원은 인환 스님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에 2시간 씩 인터뷰했으며, 이를 모두 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음했다. 총 27차례 구술 녹취작업이 이뤄졌고, 이를 원고로 옮긴 분량은 약 4천여 매 이상이 됐다. 이후 구술 녹취록을 기초로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윤문과 기획을 담당해 회고록을 편찬하게 됐다.

근현대 노스님들에 대한 구술사 정리는 한국불교 현대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환 스님의 구술 회고록은 불교 현대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

실제 원산 유년기 생활과 부산 피난 시절과 선암사 생활, 그리고 1950년대 해인사와 통도사의 강원생활 등은 당시 대중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단면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전쟁 직후에 겪은 사중(寺中) 이야기들은 매우 생생하다.



"이후 휴전협정이 됐지만, 그런 시대이니까 선방에서 참선하는 이들도 그 마음가짐이 아주 특별했어요. 우리가 출가해서 이렇게 좌선 정진 수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사일대사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국가와 민족 모든 사람들이 백척간두에 있을 이럴 때에 참으로 우리들도 목숨을 걸고 참선 수행을 해야지 하는 무언의 기백이 꽉 차있었어요." –〈나의 발심수행장〉上, P149~150 中

의욕이 넘쳤던 젊은 시절, 강원과 동국대를 졸업하고, 스님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향학열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일본유학을 결행하였고, 동경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다시 캐나다와 미국에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 · 하 두 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환 스님의 회고록은 텍스트(글)와 함께 다양한 자료 사진들을 수록된 것이 특징이다. 스님의 생애를 따라 관련 사진들을 수집했고, 말미에 그동안 스님이 여러 매체에 투고한 글들을 수록했다.

또한 스님의 구술 모습과 육성을 시청할 수 있도록 60분 분량의 구술영상을 DVD로 제작해 함께 포함했다.

회고록과 함께 발간한 〈증도가〉와 〈선리참구〉는 선학원이 발간하는 월간 〈선원〉에 게재한 원고들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인환 스님은 회고록과 〈증도가〉, 〈선리참구〉를 법보시할 계획이다.

스님이 일생에 걸쳐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스님은 소회를 밝히는 게송을 책머리에 펼쳐놨다.

'매일 매일이 좋은 날이요, 해마다 해마다 상서로우니. 이 세상이 그대로 정토요, 내세에는 법계를 누리리라.(日日是好日 年年是吉年 此生遍淨土 來生遊法界)'

"진실하고 꾸준한 참선수행을 통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좋은 날이요, 근사한 해임을 깨달아서 매일의 생활을 내 것으로 수용함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매일 매일이 좋은 날.' 출가 사문의 길을 걸어온 스님이 일생 동안 추구하고 전하려 했던 활구(活句)가 아니었을까. **신성민 기자**



루저들도 희망을 꿈꾼다

하루코의 봄

유응오 지음 | 실천문학사 펴냄 | 1만 2천원



루저(Loser). 어느 순간 한국 사회를 풍미했던 말이다.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루저'는 그냥 패배자가 아니다. 경쟁에서 진 사람들을 경멸적인 어조로 부를 때 사용하는 영미권 단어다. 다시 말해 인생이라는 레이스에서 완전 탈락한 사람들 혹은 애초에 레이스 참여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200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고 불교계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유응오 작가의 장편소설 〈하루코의 봄〉은 루저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기실 작가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삶을 사는 군상들을 꾸준히 천착해왔다. 하이틴 아웃사이더들의 이야기를 에너제틱하게 그린 신춘문예 당선작 〈요요〉가 그랬고, 이번 소설도 마찬가지다. 어찌보면 〈하루코의 봄〉은 〈요요〉의 확장판 같다는 느낌이다.

추천사를 쓴 성석제 소설가도 "작가의 등단작 〈요요〉의 10대 아웃사이더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40대 루저가 되어서 아빠방으로 모여든 모습을 보여준다. 10대의 가출 팸에서 40대의 대안가족으로 바뀌었을 뿐 그들은 여전히 거리를 유랑하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어딘가에 하나씩 중독된 루저들이다. 일본의 룸살롱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하루코는 속도광이고, 불새는 한때 호스트바의 에이스였지만 도박에 중독돼 인생을 말아먹었다. 고문 후유증으로 자살한 형의 기억을 안고 사는 판돌이는 레코드판을 즐겨 듣는 편벽이 있다. 고아 출신 깡패 승룡은 마음이 적적할 때마다 산사를 찾는다. 게이인 떨이는 마리화나를 피우는 게 유일한 낙이다.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난주는 홍콩에 가서 화보집을 살만큼 장국영의 팬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본명이 아닌 별명이나 가명으로 불린다. 특히, 고아원에서 지어준 가명인 준수 대신 조직의 보스가 지어준 또 다른 가명을 쓰면서 살아가는 승룡의 모습은 한 번도 중앙의 삶을 살아본 적 없는 주변인의 초상이다. 소설 제목은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인 '하루코'의 '봄날'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루코'에서 '봄이'로 이어지는 저릿한 생의 유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작가 특유의 문장과 서사로 숨쉴 틈없이 전개된다. 옴니버스 형식을 취하고 있어 개별적으로는 하나의 단편소설이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장편소설로 귀결되는 것도 매력이다. 등장인물 각자의 이야기는 경계와 경계로 이어지며, 미묘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 흐름 속에서 독자들은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역설의 희망을 만난다. 떨이는 오스카 와일드의 〈옥중기〉를 읽으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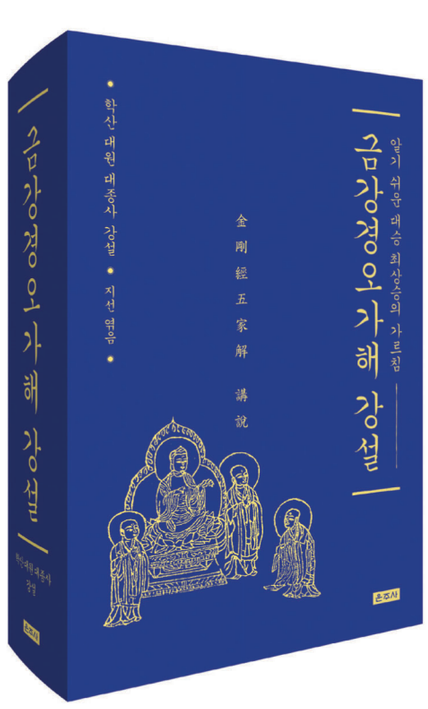
어둔 곳서 살아가는 군상 그려
나락서 만난 '向上一路' 가르침
낮아질수록 높아진단 역설 담겨

상처 입은 몸으로 찾아간 산사에서 승룡에게 무상 스님이 내리는 '향상일로(向上一路)'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법문은 소설의 압권이다.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고 눈 앞이 캄캄할 때는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된다. '향상일로'라는 말이 있다.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뜻이다. 향상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나?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거다. 알겠냐?"

어쩌면 이 소설은 '꽃 피는 시간마저 지나버린 꽃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더욱 애처롭고 처연하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무엇일까. 인생은 고(苦)이고, 무상(無常)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를 알지만 마지막까지 가지려고 한다. 결국, 인생은 내려놓고 정진하는 것임을 이 소설의 군상을 통해 깨닫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신국판양장/912쪽/값 38,000원

금강경 이해의 길잡이,
금강경 해설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금강경오가해』!

금강경오가해 강설

학림사 오등선원의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을 붙이다!

–경의 요처마다 선적, 교학적 안목과 현대적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여 바른 안목으로 이끌어준다.

『금강경오가해』는 규봉종밀, 육조혜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명안 조사의 금강경 주석을 모아 엮은 것이다. 여기에 해동의 함허득통 스님이 설의를 붙이니 '육가해六家解'가 되고, 다시 학산대원 스님이 강설을 덧붙이니 '칠가해七家解'가 되었다.

학산鶴山 대원大元 대종사는 1956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 수계했다. 대교를 이수하고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정진 수행 중 홀연히 깨닫고 고암 대종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았다. 1988년 학림사를 창건하고 오등선원을 열어, 간화선 수행 가풍의 진작과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하고 있다.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역임하였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대종사, 종정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정진하고 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